

“아이돌 스타와 고래인간의 만남 다룬 판타지”

합평출신 김명주 작가 ‘혼불문학상’ 수상...상금 7000만원

10월 남원서 시상식...당선작 ‘검푸른 고래 요나’ 9월 출간

“이번 수상 작품은 후속적 성격의 작품입니다. 지난 2020년에 일차적으로 습작품을 썼어요. 그 해 11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유골함에 습작품을 넣어드렸죠. 꼭 작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를 뵙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합평출신 김명주 작가가 7000만원 상금의 '제12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검푸른 고래 요나'.

혼불문학상은 대하소설 '혼불'의 작가인 최명희의 삶과 문학 혼을 기리고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문학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전주문화발전 기금에 제정된 문학상이다.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하고 신인과 기성 구분 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김 작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 작품이 당선될 줄 몰랐다. 수상 소식을 듣고 얼떨떨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상작인 ‘검푸른 고래 요나’를 쓰던 당시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떠나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합평군 읍내면 송로리 해정마을 출신이다. 합평 하면 이제는 문향(文香)이라 해도 될 만큼 뛰어난 작가들을 배출했다. 기자가 아는 합평 출신 작가만 해도 박노해 시인, 최유정 소설가, 김형수 소설가 등이 있다. 저마다 특유의 문학 세계를 일구낸 작가들이다.

“합평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할 고장이지요.”

김 작가는 현재 경기도 성남에서 거주하며 소설을 쓰고 있다. 엄다초, 엄다중, 합평고를 졸업하고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직장생활을 하며 소설 쓰기를 지속해왔다. '법대를 졸업했

으니 부모님은 로스쿨을 진학하거나 공무원이 되길 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 안정적인 직업을 강조했지만 한편으로 자식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지켜보시는 편”이라고 말했다.

사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특히 장편 소설을 쓰는 것은 오랫동안 천착하지 않고는 완성하기 힘들다. 시간과의 싸움이자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비로소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스토리를 잡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1차 습작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눈술 강사도 했었고, 콜센터에서 격일제로도 근무하며 소설을 놓지 않았어요.”

이번 소설은 아이돌 그룹 공연을 봤던 것이 모티브가 됐다. 지난 2020년 6월경 라이브 무대를 봤는데 춤이 매료됐다.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검푸른 고래 요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작가에게 찾아왔다. 이야기는 아이돌 주인공 주미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미는 학교에서 고래인간으로 변한 한 남학생을 만나게 되고 이후 소설은 판타지적인 성격으로 전환된다. 고래 인간을 추적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이 과정에서 주미는 요나를 도와주게 된다. 고래 인간을 ‘요나’라고 설정한 데서 보듯, 이름은 천주교 세례명에서 얻었다.

그는 “k팝을 하는 인간이 특이체질 성향의 인간을 만나면 재미있겠다”는 설정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래 인간이 떠올랐다”고 언급했다.

김 작가는 고교 시절에는 밴드활동도 했다. 소



김명주 소설가

설 곳곳에 예술이나 음악적 요소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그런 경험과 무관치 않다.

심사위원들은 구어 위주의 생생한 문장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사한 점, 대중문화의 상상력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소설의 중요 장치로 설정해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한 점을 높이 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작가는 앞으로도 소설을 쓸 작정이다. “인간의 유형을 만들어 가는데 관심이 생겨 멈출 수가 없다”는 말에서, 그의 창작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이 된다. “상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물음에 “정부의 청년 지원책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료가 돌아와 여기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 고민은 경제활동에 대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퀄리티 있는 작품을 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2-3년은 다음 소설 구성과 글쓰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중 남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당선작은 9월에 출간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가곡 부르기’ 공연 모습.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와 섬을 노래하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8일 광주예총 방울소리 공연장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고 배우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 15회 공연이 오는 8일 오후 7시 광주예총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7월 공연인 이날 무대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와 섬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이번 무대에서 회원들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와 섬 등 대자연을 노래한 가곡 18곡을 연주한다.

추억의 노래 시간에는 ‘금강에 살으리랴’, ‘청산에 살리라’, 정다운 노래 시간에는 ‘동강은 흐르는데’, ‘섬진강’을 연주한다.

사랑의 노래 시간에는 해남 출신의 노항림의 시를 기반으로 한 ‘압해도’를 들려준다.

이 밖에 ‘아름다운 섬진강’, ‘대관령’, ‘독도, 너는 동해에 서 있구나’, ‘섬진강’, ‘낙화암’, ‘백두산’, ‘천년의 그리움’, ‘산아 산아 한라산아’, ‘석굴암’, ‘시와 별 그리고 동강’, ‘그리운 금강산’, ‘산길’, ‘산이 나를 부르네’ 등을 연주한다.

이날 무대에는 테너 박상휘·손금옥·정갑주·김종석, 소프라노 심옥호·서숙주·이현임·정인숙·나인희·고재정·김종래·김희숙, 메조소프라노 조정옥·박원자, 바리톤 이길호·윤길·임동운·윤황중, 베이스 기세관이 함께 한다.

한편 오는 8월에 열리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5회 무대는 창립 14주년 음악회로 진행되는 등,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행운의 7월, 쿨하게 쓴다’

광주문화재단 이벤트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운의 7월, 쿨하게 쓴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구매 금액 상관없이 문화누리카드 결제 후 문화누리카드 사진 등을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총 77명에게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당첨자에게 8월 10일 개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광주에는 공연장, 미술관, 공방, VR·빙탈출 체험, 고속버스, 철도 등 1,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이 등록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광주문화누리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44/744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정진 아쟁산조, 방수지 판소리 무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2일 토요일 상설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진행하는 2일(오후 3시) 토요일 상설공연은 판소리·산조 무대로 채워진다.

공연 첫 무대는 박정진의 한일섭제 박종선 류 아쟁산조. 1949년 이후 한일섭에 의해 형성된 아쟁산조 가락에 박종선이 선율을 더했다. 절제된 듯 무심히 놀라대는 한의 표현이 특징이다.

박정진은 진도북놀이 보유자 고(故) 박관용 선생(전남 무형문화재 제18호)의 손자로 전남대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국악연구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무대 장단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원 김철환 씨가 맡는다.

이어지는 무대는 방수지의 김세종 바디 동편제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 대목. 김세종 바디 춘향가는 대마다 대장단의 구성으로 선이 굵은 성음을 느낄 수 있는 바디다. 이별가 대목은 춘향가의 눈대목으로 손꼽히며, 다이내믹한 시김새가 돋보인다.

방수지는 전남 무형문화재 제29-2호 동편제 춘향가 이수자로 제11회 화순 전국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종합대상 국회의장상을 수상



박정진



방수지

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있다. 고수는 전남대 국악학과에 재학 중인 서근원 씨가 함께한다.

이번 공연은 전통문화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한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전통문화관 일원에서 민속놀이와 한복체험이 펼쳐지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9일 국악장작 무대에 ‘경성구락부’ ‘신(新)청년’이 펼쳐질 예정이다. 문의 062-670-8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가족여성재단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 진행 중인 ‘어린이의, 마음으로’ 전.

창작활동 통해 어린이들 감각 일깨운다

광주여성가족재단, 7월 한달간 전시연계 프로그램 진행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 김미경)은 가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7월 한 달(매주 금요일)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6-10세 어린이와 그 가족으로 전시해설과 창작활동을 함께 즐기며 내면의 감각을 일깨우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김서연 동화구연지도사와 함께 전시 도서를 읽고 슈링클자를 활용해 ‘나의 용기패’를 만들고 내가 읽고 싶은 옷을 상상하는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린이들은 건강하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갖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해당 선착순 15명을 모집, 무료로 실시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굿즈도 증정할 예정이다. 저번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및 재단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QR코드 및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재단 여성전시관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해 어린이·가족, 성평등 등 사회적 의제를 반영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전시를 진행 중이다.

전시 관람은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문의 062-670-0563. /김민석 기자 mskim@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